

보도자료

제목	다시 만나는 백남준의 〈로봇 K-456〉, 서거 20주기 故백남준의 예술정신을 따라 함께 하는 축제의 장, 2026 《AI 로봇오페라》		
문의	행사: 이혜현 학예연구사 t.031-201-8553 m.010-4432-0415 취재: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배포	2025. 1. 21.	쪽수	총 10매 (사진 9장)

다시 만나는 백남준의 〈로봇 K-456〉, 서거 20주기 故백남준의 예술정신을 따라 함께 하는 축제의 장, 2026 《AI 로봇오페라》



-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 《AI 로봇 오페라》 1월 28(수)~29일(목)에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려
- 움직임 기능이 복원된 〈로봇 K-456〉 1964(1996) 대중에게 처음 선보여
- 백남준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대 예술가, 권병준, 〈유령극단x로봇K-456 :
다시 켜진 회로〉, 김은준, 〈시퀀셜〉의 추모 공연

2026년 1월 29일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1932~2006)의 작고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은 1월 28일(수)과 29일(목) 양일간 故백남준의 서거 20주기 행사 『AI 로봇오페라』를 열어 백남준의 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다시 접속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모티브가 된 『로봇오페라』*는 1965년의 백남준이 뉴욕에서 실행한 역사적 퍼포먼스로 이 공연에서 백남준은 원격으로 〈로봇 K-456〉를 조종하고 샬럿 무어먼(Charlotte Moorman, 1933~1991)과 협연하는 등 인간과 로봇이 함께 하는 거리 공연을 시도하며 인간화된 기술을 예술 형식으로 구현해냈다. 2026년의 『AI 로봇오페라』는 복원 과정을 거쳐 다시 움직이게 된 〈로봇 K-456〉을 중심으로, 백남준이 제시했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권병준과 김은준의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로봇 K-456〉(1964/1996, 백남준아트센터 소장)은 백남준이 구현한 인간화된 기술의 모습이 집약된 그의 대표작으로 백남준아트센터는 서거 20주기를 맞아 움직이는 기능을 복원해 대중 앞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백남준의 공연에 여러 차례 등장한 〈로봇 K-456〉은 일본의 공학박사 슈야 아베(Shuya Abe, 1932~)와 함께 제작한 것으로 여러 개의 버전이 있으며, 아트센터 소장품도 그 중 하나이다. 몇 해 전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했던 슈야 아베가 제공한 기술매뉴얼과 백남준아트센터의 『예술-기술보고서』(2025)에 제시된 지침을 토대로 복원하여 〈로봇 K-456〉은 비로소 걷고 말하고 배설하는 인간화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또한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계승하는 두 명의 예술가, 권병준과 김은준이 2026년의 『AI 로봇오페라』에 함께 한다. 『시퀀셜』(2026)은 김은준이 작곡한 작품으로 전자 음악과 피아노 연주를 바탕으로 플룻(승경훈), 바이올린(윤석우), 비올라(변정인)가 협연하는 총 3악장 구성의 공연이다. 김은준은 『로봇오페라』(1965)와 〈로봇 K-456〉에서 드러난 기술과 인간의 공존, 로봇이 지닌 비선형적 감정과 취약함을 음악적 변수와 리듬으로 풀어낸다.

권병준의 〈유령극단 x 로봇 K-456: 다시 켜진 회로〉(2026)는 2021년 남산한옥마을에서 선보인 장소 특정적 사운드 퍼포먼스 〈유령극장-심심한 밤을 보내리〉를 바탕으로 각색한 로봇 마당극이다. 다시 움직이게 된 〈로봇 K-456〉을 ‘다시 켜진 회로’로 은유하며, 로봇을 배우로 초대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로봇 축제를 선보인다. 관객은 로봇의 행위와 목소리를 따라 백남준아트센터 곳곳을 이동하며 기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을 경험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자세한 정보는 백남

준아트센터 누리집(njp.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온라인 추모이벤트 “백남준의 목소리, 언제 어디서나 들리는 *Nam June Paik Voice, Always and Everywhere* ” 해시태그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백남준의 작품을 소장한 기관들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백남준 추모영상과 작품 이미지를 업로드하며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기리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박남희는 “기술이 지식을 넘어 감각을 만드는 지금, 그의 실험과 저항의 예술이 불안전하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통찰과 물질과의 공존을 사유하게 한다.”며 서거 20주기가 되는 2026년, “‘다시 켜진 회로’ 안에서 백남준의 예술이 시공을 넘어 우주 오페라로 울리기를 바라며 그의 20주기를 추모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남준의 유해가 있는 서울 삼성동의 봉은사에서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20주기 추모재가 열린다. 백남준이 잠들어있는 봉은사 법왕루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이며, 고인의 사진과 하영진 조각가가 주조한 백남준의 데드마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2026 《AI 로봇 오페라》

- 행 사 명: 백남준 서거 20주기 행사 《AI 로봇오페라》
- 행사기간: 2026년 1월 28일 오후 3시 / 1월 29일 오후 2시
- 행사장소: 백남준아트센터 1층 내외부
- 참 여 자: 권병준(작가), 김은준(작가) 그리고 〈로봇 K-456〉
- 주최/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참 가: 무료, 경기문화재단 및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사전 예약
- 문 의: 031-201-8553
- 세부일정

1월 28일 (15:00)

구분	시간	내용	비고
공연	45분	권병준, 〈유령극단 X 로봇 K-456: 다시 켜진 회로〉, 2026	

1월 29일 (14:00)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추모식	20분	백남준 서거 20주기 추모식	
공연	40분	김은준, 〈시퀀셜〉, 2026 (변정인, 윤석우, 승경운 협연)	
	45분	권병준, 〈유령극단 X 로봇 K-456: 다시 켜진 회로〉, 2026	

권병준의 《AI 로봇오페라》 프리뷰 장면	김은준 《AI 로봇오페라》 프리오프닝

○ 작품 소개

김은준, 〈시퀀셜〉, 2026

김은준은 백남준이 《로봇오페라》(1964)와 〈로봇 K-456〉에서 보여준 예술정신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이번 공연의 작곡과 연주를 맡았다. 그는 《로봇오페라》(1964)에 로봇을 등장시킨 백남준의 시도가 자칫 어둡게 그려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제시한 것이라 보았으며, 그 예술정신이 시대를 초월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백남준이 〈로봇 K-456〉의 작품명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9번 K.456’에서 착안한 것에서 출발해, 이 작품이 미술 안에서 보여준 기술과 인간의 공존, 로봇이 드러내는 비선형적 감정과 취약함을 음의 변주와 리듬으로 풀어낸다.

권병준, 〈유령극단 x 로봇 K-456:다시 켜진 회로〉, 2026

권병준은 쓸모와 효율, 그리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 각광받는 현대사회에서, 부채춤을 추거나 오체투지를 행하는 로봇을 제작해 온 작가이다. 그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능으로서의 완벽한 로봇이 아니라, 쉽게 망가져 수리가 필수적인 유약한 로봇에 주목해 왔다. 이번 로봇극에서는 복원 과정을 거쳐 다시 걷게 된 백남준의 〈로봇 K-456〉을 배우로 초청해, 여러 로봇들과 함께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에서 하나의 로봇 축제를 펼친다. 참여자들은 로봇의 행위와 목소리에 이끌려 ‘백남준의 오래 사는 집(백남준아트센터)’ 곳곳을 이동하며, 기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 참여자 소개

권병준

권병준은 싱어송라이터로 음악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 작업을 해왔다. 이후 2000년대부터 소리학과 예술&과학을 공부한 후 전자악기 연구개발 기관인 스타임(STEIM)에서 공연과 사운드 등에 관한 실험적 장치를 연구, 개발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2011년 귀국한 이후, 새로운 악기와 무대 장치를 개발·활용하여 음악, 연극, 미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연출하였고 소리와 관련한 하드웨어 연구자이자 사운드를 근간으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2018년부터 로봇을 이용한 기계적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김은준

김은준은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로지과 컴퓨터음악 작곡으로 예술전문사를 취득한 작곡가이다.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CT대학원

AI팀에서 음악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전자음악협회(KEAMS) 연구원으로서 전자음악과 기술 기반 예술을 탐구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라이브 전자음악 공연, 사운드 설치, 오디오비주얼, VR 및 메타버스 기반 퍼포먼스, AI 등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해 음악, 미디어, 기술의 조화를 통해 컴퓨터 음악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알고리즘이 협력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운드와 퍼포먼스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변정인 연주자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비올리스트로 활동 중인 변정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대학에서 디플롬 과정을 거쳐 마이스터클라센(음악박사) 학위를 한국인 비올리스트 최초로 취득하였다. 유학 중 독일 드레스덴 필하모닉 단원, 마인츠국립교향악단 종신부수석을 역임하였으며, 귀국 후 광주시향, 대천챔버오케스트라, 인천시향챔버, 서울비르투오지 등의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는 현대음악연주자, 바로크음악 연주자로도 주목받으며 통영국제음악제, 경기현대음악제, PLZ페스티벌, 여수예울마루실내 악페스티벌, 대한민국실내악작곡제전,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등에서도 연주하였다.

윤석우 연주자

첼리스트 윤석우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수학한 유럽파 연주자로, 스페인의 열정과 프랑스의 섬세함을 겸비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프랑스 불로뉴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비롯해 리옹·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에페르네·바틀로 랑팔 콩쿠르 1위 등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귀국 후 국군교향악단과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승경훈 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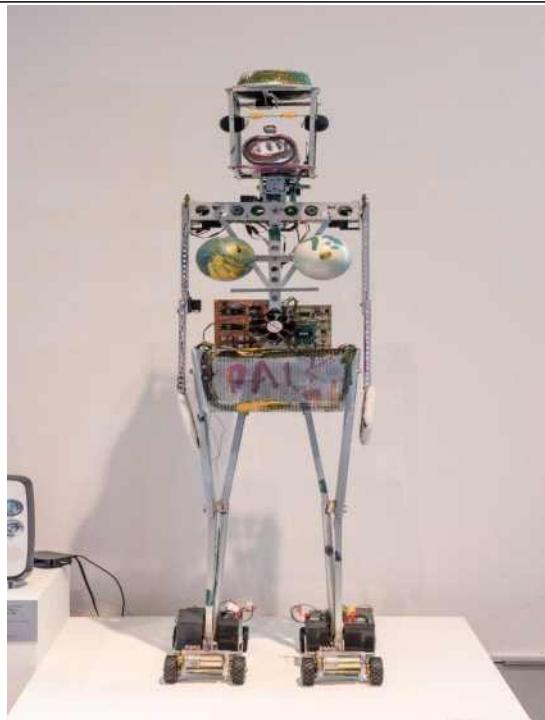
플루티스트 승경훈은 이화 경향, 음악 저널, 한국 플루트협회 등 국내 다양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플루트 연주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등과 협연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과 리옹 고등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예일대학교에서도 공부하였다. 약 2년간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정단원을 지내고 현재 현대음악앙상블 위로(WIRO), 로드앙상블, 목관오중주 디베르 (Divers) 앙상블 정단원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 로봇 K-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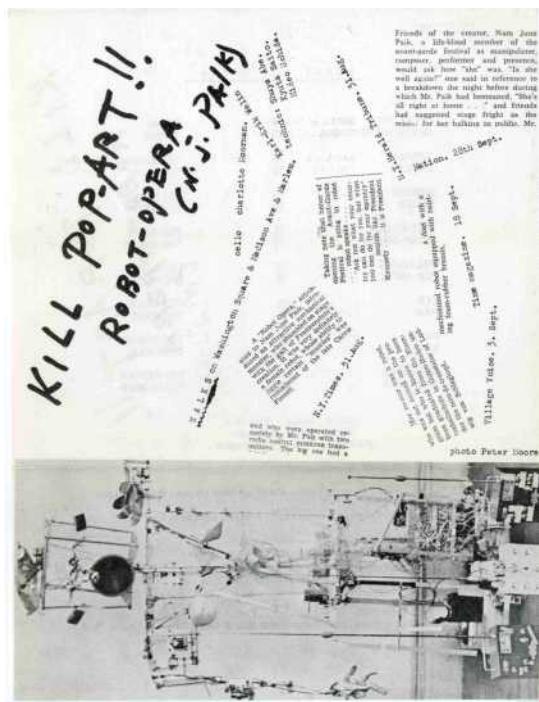
백남준의 첫 번째 로봇 작품인 〈로봇 K-456〉은 그가 1963년 독일에서의 첫번째 개인전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교류하며 전자공학을 연구하던 시기인 1964년에 처음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1964년 제 2회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의 오프닝에서 처음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24시》(복일 부퍼탈, 19965)에서는 샤롯 무어만과 함께 작동하는 〈로봇K-456〉을 선보였다. 20채널로 원격 조정되는 〈로봇K-456〉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8번 B플랫 장조〉의 코렐 번호를 따 이름을 붙였다. 이 로봇은 거리를 활보하며 라디오 스피커가 부착된 입으로 존 F. 캐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재생하고 마치 배변을 하듯 콩을 배출하기도 했다. 〈로봇 K-456〉은 백남준과 각종 퍼포먼스에서 함께 공연했고 1982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회고전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퍼포먼스에 등장하였다. 백남준은 이 퍼포먼스를 “21세기 최초의 참사”라 명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계적 합리성의 허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경험하며 인간적 고뇌와 감성을 지닌 인간화된 기계의 면모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로봇오페라

《로봇오페라》는 백남준이 1965년 뉴욕의 워싱턴 스퀘어에서 〈로봇K-456〉, 샬롯 무어먼과 함께한 공연이다. ‘팝아트를 죽여라’라고 적힌 리플릿을 행인에게 나누어주고, 20채널의 무선 조종과 10채널의 데이터 리코더가 장착된 〈로봇 K-456〉이 샬롯 무어먼과 함께 하는 거리 공연이 포함되었다. 퍼포먼스의 황금기였던 1960년대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이 공연은 현대미술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움직이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며 음악과 기술을 포용하는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백남준 <로봇 K-456>, 1964(1996)
전자장치, 금속, 천, 고무, 원격조정 장치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커트 술츠, <로봇-오페라: 팝 아트를 죽여라!: 뉴욕>, 연도미상, 커트 술츠 컬렉션,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컬렉션)

백남준(1932.7.20.~2006.1.29.)



풀게린, 리모트컨트롤로 <로봇 K-456>의 팔을 테스트하는 백남준, 1982,
풀게린 컬렉션,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 홍콩에서 중학교를,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도쿄대학교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한 후,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음악으로 졸업 논문을 썼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이 때부터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백남준은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작품과 비디오 영상을 결합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필두로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에 독일관 대표로 참가하여 유목민인 예술가라는 주제의 작업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레이저 기술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가운데 1990년대 중반 뇌졸중이 발병했다. 하지만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백남준은 예술적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이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던 백남준은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 있는 미래학자”로 평가 받으며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봉은사, 故 백남준 20주기 추모재 봉행

-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봉은사 법왕루
- 주최 및 주관: 봉은사

백남준의 작고 20주기를 맞아 1월 29일(목) 봉은사에서 추모재를 갖는다.

- 추모재는 불교 전통의 천도재 형식으로 봉은사 주지스님이 주관하며 추모사와 함께 이번에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추모사 영상이 상영된다. 상영 후 현향과 현화가 진행된다.
- 어린 시절 백남준의 추억이 깃든 봉은사 법왕루에는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이와 함께 고인의 사진과 하영진 조각가가 주조한 작품인 백남준의 데스마스크(사후 고인의 얼굴을 청동으로 본떠 만든 상)가 설치되어 있다.
- 봉은사는 백남준을 기리는 많은 이들과 함께 백남준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후대에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추모재를 2007년부터 지내고 있다.